

올해 광주·전남 지역인재 400여명 채용

혁신도시 공공기관, 내일 조선대 해오름관서 '합동채용설명회' 한전KPS 등 13곳 참여...취업알짜정보 제공·일대일 상담 진행

빛가람혁신도시에 이주한 공공기관들의 합동 채용설명회가 열린다. 올해 이전기관들은 광주·전남지역 지역인재로 400여명을 채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광주시는 오는 4일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남도 등과 함께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2019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국내 최대 공기기업인 한국전력을 포함해 한전KPS,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3개 이전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이밖에 광주은행을 비롯한 3개 지역기업 등이 참여해 광주·전남지역 취업 준비생들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 기업은 이전 공공기관별 채용상담

부스를 설치해 기관별 채용담당자가 채용요강을 안내하고 취업준비생들과 일대일 취업상담을 진행한다.

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방법 안내, 한국전력·한국농어촌공사의 신입사원 채용요강 안내, 한전 KDN·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입사한 지역 선배의 취업성공 사례발표 등이 본 행사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어서 취업을 앞둔 지역 취업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실제 채용면접관의 모의면접과 직업심리검사,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컨설팅, 메이크업·코디 컨설팅, 이력서 사진 촬영, 나만의 명함 만들기 등 부대행사도 곁들여질 계획이다

올해 빛가람혁신도시를 비롯해 혁신도

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법제화됨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은 지난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비율 18%를 시작으로 매년 3% 이상 확대해 오는 2022년까지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빛가람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21.1%로, 359명이 지역인재로 채용됐다. 이는 당시 목표 비율인 18%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올해 이전공공기관 전체 채용규모가 2300여명이라는 점에서 총 400여명의 지역인재가 채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 비율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및 실무회의'를 구성·운영해 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제반사항 등

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전 공공기관 상·하반기 대학생 탐방(12회·회당 40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오픈캠퍼스 확대, 공공기관장협의회 및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공동 과제로 상정해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지역인재 채용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는 '혁신도시법 시행령' 지역인재 채용 예외조항에 대해서도 타 혁신도시와 공동 연대해 조기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할 것이라는 게 광주시 측의 입장이다.

김광휘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채용설명회를 통해 지역인재들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며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간 연계를 더 강화해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이전 공공기관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나주 명소 지도로 제작

공공기관 3곳 '올라지도'에 관광코스 소개 등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빛가람혁신도시 3개 입주기관은 지난 1일부터 지역 홍보와 관광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내책자인 '나주에 올라지도'(地圖)를 만들어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나주에 올라지도'는 '오려는지'라는 뜻의 전라도 사투리 '올라지'와 지도(地圖)를 합성한 말로 '이 지도를 통해 나주에 많이 방문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지역 관광자원에 대한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역민 의견을 수렴해 지역의 뛰어난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지도형태의 소책자로 제작됐다.

사건 등 관광지 콘텐츠 공모전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참여 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활용해 전 국민 대상 온라인 투표와 지역 사회적기업과 협업을 통한 안내책자 제작하는 등 지역발전 위한 이전 공공기관, 지역사회, 사회적기업간 새로운 협업모델을 만드는 성과를 도출했다는 게 해당 기관들의 설명이다.

지도에는 빛가람 혁신도시 등 나주시 근교 총 10곳의 관광 코스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와 시민이 직접 촬영한 사진 및 방문후기를 실었다. 이번에 제작한 책자



는 3개 공공기관, 나주시청 등 행정기관, 관광안내소뿐 아니라 수도권에서 나주지역으로 여행하는 주요 동선의 역사·터미널 등에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또 3개 기관은 향후에 올라지도를 광주·전남지역으로 확대해 지역의 관광자원을 전 국민에 지속적으로 소개·홍보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전KDN, 시공간 분석 웹 'GIS 솔루션' 개발

대용량 공간빅데이터 분석 등

한전KDN은 시공간 분석이 가능한 GIS 솔루션인 K-GIS를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K-GIS는 최신 ICT 기술을 융복합해 대용량 공간정보를 저장·분석하고 다양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개방형 웹GIS 서비스 플랫폼을 말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력수요와 설비수명 예측을 통해 고 품질의 전력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체계적 설비관리를 지원한다.

세부 제품군으로 대용량의 공간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K-GIS GBD(Geo Big Data)를 포함해 GSS(Geo Spatial Server), GWS(Geo Web Server), Desktop, SETL(Spatial Extract Transform Load), MapSync, VTS(Vector Tile Server) 총 7개 제품군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최근 한국전력에서는 스마트 재난관리통합시스템, 광케이블 통합운영관리시스템, 저압AMI 서버시스템에 K-GIS를 성공적으로 도입, 완료한 상태다.

앞으로도 여러 전력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데이터를 GIS 솔루션과 융합해 시각화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전KPS, 변화·성장으로 새로운 35년 다짐

창립 35주년 기념식

한전KPS는 지난 1일 빛가람혁신도시 본사 1층 빛가람홀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사창립 제3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창립 기념행사는 회사 상징물인 '에너지 날개' 제막식을 시작으로 사창립 35주년 분행사, CEO와의 소통의 장(場), 안전 실천 및 응급구급 훈련 결의대회, 저명인사

경영특강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또 회사 최고의 영예인 '한전KPS인상'에는 터빈 분야의 이론과 현장 노하우를 겸비한 고리2사업처 터빈부 김대근 부장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대근 한전 KPS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한전KPS는 지난 35년간 전력산업의 최일선에서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제는 변화와 혁신을 체질화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앞으로의 35년을 준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한전KPS는 지난 35년간 인재육성과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발전설비 정비산업 분야의 중심기업으로 성장했으며, 해외 시장에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1조 2396억원의 매출과 영업이익 1907억원, 당기순이익 1608억원 등 재무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콘텐츠진흥원, 고객만족도 A등급

전년비 한 단계 상승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이하 한콘진)이 20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기획재정부의 주관으로 고객 중심 경영 추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진행하며 2018년도에는 24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한콘진은 지난해 공정과 상생, 소통과 공감의 사람중심 콘텐츠산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기관장 경청투어는 시작으로 ▲정책협의 네트워크 ▲대국민보고회 등을 통해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였으며 ▲이행보중증권제출 의무 폐지 ▲공정평가담당관 도입 등 소통을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보여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결과를 얻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T, 농식품 청년 일자리 창출·인재 육성

농식품미래기획단 '얹' 발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근 '2019 농식품미래기획단 얹(YAFF) 제6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미래기획단은 농식품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인재육성을 위해 구성됐으며, 2014년 창단에 올해 6년을 맞았다.

단원들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청년 인턴십, 농식품 인재육성 교육, 지역

별 강소식품기업 탐방 등 실무 역량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병호 aT 사장은 "농식품미래기획단 운영을 통해 청년에게는 바른 일자리를, 기업에는 우수한 인재를 소개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국내 농식품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대학생의 취업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방치된 묘지 70%(추정)

우리 금주강산이 묘지강산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수목장(묘정리·이장·안치)

본 자연장은 아름기도회에서 운영하는 회원들을 위한 종교시설입니다.

- 자연장의 장점 •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 · 수목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4 랜덤피아 1011호

☎ (062) 372-7878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

